

## 남원의료원, 농촌기반 노화 심층조사 사업 참여

✎ 김수현 기자 | ⌚ 승인 2023.08.17 13:04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이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2023년도 남원지역 농촌기반 코호트 노화 심층조사 사업'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촌기반 코호트 노화 심층조사 사업은 질병관리청의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사업'에 포함된 코호트 연구로, 한양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남원의료원과 연계해 이미 구축된 농촌기반 코호트 인프라를 활용한 노화 심층연구를 진행한다.

남원의료원에 따르면 농촌기반 코호트 노화 심층조사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코호트 기반조사를 시작으로 2~3년마다 반복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동안 3974명이 기반조사에, 5665명이 추적조사에 참여했다.

남원의료원은 남원지역 농촌기반 코호트 연구 기반조사에 참여해 조사 완료된 인원 중 165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수행한다.

오는 11월 24일까지 3개월간 전남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인지기능·신체계측 및 설문조사, MRI 촬영 등의 추적 관찰을 수행하고, 인지노화, 질병상태, 사망원인 등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농촌기반 코호트 연구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법 개발 연구 사업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h5351@hanmail.net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

HOME (/) > 로컬+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7) > 광주·전북·전남·제주 (/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93)

## 남원의료원, 농촌기반 코호트 노화 '심층조사사업 참여'

송정섭 기자 | 승인 2023.08.17 15:20



(사진=남원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은 17일부터 2023년도 남원지역 농촌기반 코호트 노화 심층조사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농촌기반 코호트 노화 심층조사 사업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에 포함된 코호트연구로 한양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과 연계해 구축된 농촌기반 코호트 인프라를 활용한 노화 심층연구를 진행한다.

농촌기반 코호트 노화 심층조사 사업은 2004년~2006년까지 코호트 기반조사를 시작으로 2~3년 주기의 반복조사를 실시했으며, 3974명이 기반조사에 참여했고, 5665명이 추적조사에 참여했다.

남원의료원은 남원지역 농촌기반 코호트 연구 기반조사에 참여해 조사 완료된 인원 중 165명을 대상으로 11월24일까지 3개월간 전남대학교 연구팀과 인지기능·신체계측 및 설문조사, MRI 촬영 등의 추적 관찰을 수행해 인지노화, 질병상태, 사망원인 등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농촌기반 코호트 연구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법 개발 연구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남원/송정섭 기자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정섭 기자 기자

🖨 인쇄

## 남원의료원, 농촌기반 코호트 노화 심층조사 참여

✎ 장두선 | ⓒ 승인 2023.08.17 14:26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은 8월 17일부터 2023년도 남원지역 농촌기반 코호트 노화 심층조사 사업에 참여한다.

농촌기반 코호트 노화 심층조사 사업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에 포함된 코호트연구로 한양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과 연계해 기 구축된 농촌기반 코호트 인프라를 활용한 노화 심층연구를 진행한다.

농촌기반 코호트 노화 심층조사 사업은 지난 2004년~2006년까지 코호트 기반조사를 시작으로 2~3년 주기의 반복 조사를 실시했으며, 3천974명이 기반조사에 참여했고 5천665명이 추적조사에 참여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은 남원지역에서 농촌기반 코호트 연구 기반조사에 참여해 조사 완료된 인원 중 165명을 대상으로 11월 24일까지 3개월간 전남대학교 연구팀과 인지기능·신체계측 및 설문조사, MRI 촬영 등의 추적 관찰을 수행해 인지노화, 질병상태, 사망원인 등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한편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농촌기반 코호트 연구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법 개발 연구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장두선** jjnews1@naver.com

---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